

아이와 함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가는
**직장맘 n 대디
행복공동체
사업**



고양시는 부모역량 강화, 돌봄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직장인 부모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는 '직장맘 n 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 지선옥

여성과 아이,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시정의 최고 목표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지만 미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시민 행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체 부부 중 약 45%를 차지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가장 큰 걱정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 고양시는 직장인 부모 커

뮤니티 모임을 지원하는 '직장맘 n 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맘 n 대디 행복공동체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운영되는 직장인 부모 커뮤니티 모임이다. 농촌체험, 음악, 미술, 신체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에게는 자녀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직장맘 n 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에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져 현재 6개 직장부모 모임, 36가족 1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아이러브아이 공동체 수기**

글 방신현 사진 아이러브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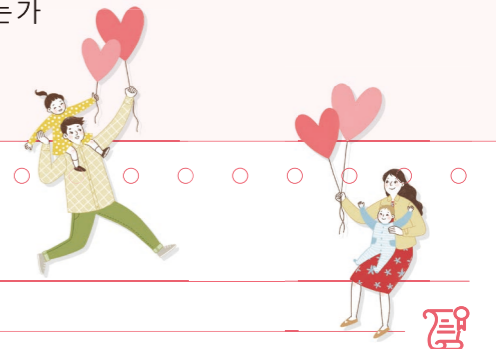
아이러브아이 공동체는 4~7세 정도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 모임이다.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엄마들끼리 육아 교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나다가 남편 한두 명이 참여하면서 정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모임의 엄마, 아빠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늦은 저녁이나 주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수업에도 참여하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아빠들을 위한 부모교육 강의에도 함께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딸기농장을 찾아가는 농장체험이나 아빠들과 뛰어노는 놀이활동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 아이러브아이 공동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며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딸기농장체험
2 놀이체육



직장맘 n 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이란?

2019년 참여현황

- 참여 공동체 - 국립암센터 부모모임, 늘해랑, 등등등, 삼품아, 아이러브아이, 원흥회
- 사업예산 - 9,000천 원(한 공동체당 최대 150만 원)

사업개요(연간일정)

- 사업공고 - 1월~2월
- 신청접수 - 2월
- 사업기간 - 4월~11월
- 사업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급
- 사업유형 - 공동 돌봄 사업, 체험학습, 부모역할 교육 등
- 참여대상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직장인 부모 모임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문의 - 031-8075-3333